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요한복음강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 - 5)

우리는 이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달라집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독립운동가쯤으로 생각한다면 그 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나 특히 공관복음서와 제 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마가복음은 고난 받는 메시야로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눅 5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요 20:31).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설교의 중심 주제였으며, 모든 설교의 내용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고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속적 죽음, 대리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엡 3:18-19). 또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므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또는 내세에 가서 반드시 만나야 하고 또 그가 누구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이 분이 누구냐?’(마 21:10)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막 4:41)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왕도 ‘이 사람이 누군가?’(눅 5:21)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질문이고 대답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그를 믿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요 20:2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 2:9).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속성이 완전하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시며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선재성(preexistent, He was 'before' all things)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태양이 생기기 전,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빌 2:6).

‘태초’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시작(요일 1:1,3), 창조의 시작(창 1:1), 영원한 태초, 곧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원한 태초에 계셨다는 뜻입니다(히 1:1, 계 1:11, 빌 2:6).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개체성 즉 구별된 인격을 말함으로 삼위일체교리의 기반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면서 셋인 영원한 신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지혜, 능력, 사랑, 거룩, 공의, 선하심,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 14:9)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가 아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1:1)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신적 성품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 본질, 품성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신다면 인

교적부 일제히 정리

교구간사 및 다락방장에게 문의하도록

우리교회는 등록 성도의 급격한 증가로 교적자료를 전산화하는 1차 작업을 마치고 기존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

현재 교회에 등록된 교적자료는 전체를 출력하여 각 교구의 간사와 다락방장에게 분배하였으며 성도들은 이 자료를 배부 받아 본인과 가족의 교적번호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수세일(세례받은 날), 직분, 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받은 교적부 출력물에 기입하여 다락방장과 교구간사를 통해 다시 교회로 전달하면 이 자료를 다시 종합하여 수정작업을 하게 된다.

아울러 이 자료는 철저히 처리하여 개인자료의 보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 협력하여 교적자료 수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결혼예비학교 개강한다

2월6일(주) 12시30분 609호에서

신혼가정부에서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상이한 가정환경과 분리된 습관 체계를 가지고 있던 두 사람들에 대해 강의와 Workshop을 통해 기독교적 결혼관을 정립하고,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실제적으로 교육하여 인성의 조화와 신혼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결혼예비학교 1학기를 개강한다.

주제는 성경적 결혼관,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 신

혼의 성스러운 성, 결혼과 재정관리, 양가부모님과 관계로 각계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다.

기간은 2월6일(주일)을 첫 강의로 5주간동안 매주일 오후 12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이며, 609에서 모임을 갖는다. 대상은 결혼을 앞둔 모든 커플들, 청년부회원들을 선착순 접수하며 특히 교회 내에서 예식을 할 커플들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접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방글라데시 선교사 수련회

1월27일(목)부터 다카에서

이종운 목사는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1월26일 출국한다.

현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특히 조남해 선교사와 바로이 선교사를 격려하기 위해 이영기, 오정수, 김광신, 노문환 장로가 동행한다.

70인 전도대

온열조끼로 겨울을 이기다

70인 전도대는 두 분 성도의 후원금으로 온열조끼 8벌을 구입하여 유난히 추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며 전도에 임하고 있다. 코끝을 에이는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천국복음을 전하기에 전념하는 70인 전도대가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예배 주관

2월23일(수) 해사 교회에서

그 동안 육군 사관학교 졸업 예배를 주관해 온 우리교회는 올 봄에 열리게 될 해군사관학교 졸업예배를 오는 2월 23일 주관하게 되어 근복음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신년 초, 힘을 불어넣는 낭보가 되고 있다. 우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근복음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를 복음화 하도록 기도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KIMCHI)

세계선교협의회에 가입하다

우리교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이 세계선교협의회에 가입하여 세계선교와 국내 교회갱신을 위한 활동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2005년 농어촌100교회추가결연

번호	교회명	목의자(목/전)	후원자
147	주사량교회	윤대성(목)	곽숙
148	미시령교회	피상열(목)	김명옥, 오병호
149	계사교회	정경표(목)	마리아여전도회
150	상만교회	성윤모(전)	한승집, 최미아
151	삼진교회	이순옥(전)	원용규, 박이선

금주의 성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6:16-17)

In addition to all thi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Ephesians 6:16-17 [NIV])

2005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교회



이완형장로(교육위원장)

교육은 학교보다 영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교회에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서울교회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로 이루는 천국시민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교회학교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성숙한 신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서울교회의 교인이라면 누구나 '가르치는 교사'이거나 '배우는 학생', 둘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는 목회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바빠도 온 교인이 교회의 목회방침을 따라 성경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울 교회로 인해 한국 교회가 갱신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일군이 많이 나와 이웃의 등대되고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이 되도록 전교인이 기도하고 이에 동참함으로써 vision을 이루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학부모들은 입시를 겨냥한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학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2010년까지 교회학교에 10,000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배우는 vision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 '교회학교=10,000명'이 아니라 '교회학교>10,000명'이라는 더 큰 vision을 갖도록 전 성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서울교회 교회학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온 누리에 퍼지길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세계 선교 원년의 해



이명기장로(선교위원장)

2005년도 선교위원회에서는 "세계 선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세부실천 사항들을 세웠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예배 후 104호에서 선교사역을 위한 선교위원들의 기도회를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기로 하였으며, 매 주일마다 6개의 해외 선교 권역별 기도회를 열어 일반 성도들도 모두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 동참함으로써 전교회의 선교지향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05년 11월 예배당 헌당 시에 선교사 20명을 해외에 파송하고 2010년까지는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기 위해 기도운동과 연구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6개의 선교 권역별 본부를 구성하여 각 권역별 도상연구 등을 통해 국가별 선교환경 연구와 조사 준비업무를 담당케 하고자 합니다.

한편, 금년에도 151개 농어촌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기도로 돌아보아 하루 속히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고, 농어촌교회가 힘을 얻어 민족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소망의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운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개하며 진행을 위해 각 도별로 지역본부와 섬김 위원들을 위촉하고 각 직능별선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선교위원회는 온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나는 선교 동역자들의 동참을 통해 서울교회가 명실공히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되어 민족교회와 세계교회를 향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시민양성- 유아부를 마치며...

주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한문영 성도(1교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사 두 아들(동훈-5살, 동준-3살)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5년차 가정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저희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셀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맘이 변함없는 사람. 지혜와 충명, 순정과 우애 성실과 진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동행 해 주소서.'

동훈이가 새해부터 유아부를 마치고 유치부로 옮겨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을 접해 본 곳, 유아부. 신앙생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곳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하기 시작한 어느 날 "엄마 배가 아파요. 배 만지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쁘고 놀랐답니다. 유아부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알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부르며 울동을 시작했던



아이, 식사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이, 처음에 우는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이 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주제로 일주일마다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부모가 해주지 못한 또 다른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 볼 때 그 시간 시간이 동훈이에게 바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리다고 말 못한다고 단순하게 생각지 마세요. 아이들의 귀는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져 있거든요. 바로 지금부터 아이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유아부 시간이 동훈이를 비롯하여 앞으로는 동준이까지 신앙생활에 발판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운 겨울,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며

김대호 장로(교육 2국장)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 드는 계절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 추위에도 분주하게 학원을 오가며 학업과 성적향상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서울교회 중고등부에서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겨울수련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참가비는 3만원, 준비물은 성경찬송, 갈아입을 옷 그리고 은혜 받기 바람입니다.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이태훈 목사님, 윤영국 목사님, 오정석 목사님, 박광일 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믿음의 기본기가 튼튼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번 겨울수련회에 꼭 참석하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번 수련회에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위해서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교회 중고등부 모든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한 알찬 프로그램과 GBS, 저녁잡회 등을 통하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후회 없는 겨울수련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게 하겠습니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새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우리 서울교회의 기둥으로,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꼭 필요로 하시는 일꾼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꼭 참석하시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 장기결석 성도 심방 동행취재

오직! 천국만 바라보세요

1월18일(화) 이른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고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운 담임목사님의 장기결석 성도 심방이 계속되었다. 이 날 심방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중계동 소재의 중계노인복지관-치매 등의 노환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입소한 곳이다.



담임목사의 심방을 함께 하기 위해 8교구 교구장이신 홍성주 장로와 이성득 목사, 담담 다락방장 강희자 권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3호실 황송옥 집사님(80세)의 침대 앞에서 심방이 시작되었다. 이종운 담임목사님이 심방을 시작하며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이 세상 것은 다 부질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세요.' 라고 권면하시자 황 집사님은 '서울교회가 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을 잇을 수가 없어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목사님은 황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셨고 손수 찬송을 집어 펼쳐주시고 찬송가 457장-주의 곁에 있을 때-을 함께 찬송하였다. 이어 이사가 43장을 펴 '아 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를 함께 읽고 설교를 통해 황 집사님께 구원의 확신을 전하였다. '하나

님이 우리를 창조 하셨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아무 것도, 병든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 하셨습니다. 집사님을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과 함께 사니 두렵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죽음의 고개를 넘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 남은 생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시고, 황집사님 딸도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 함께 승리하도록 하여주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셨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앞에 붙인 새번역 주기도를 퍼 손으로 함께 읽으며 심방예배를 마쳤다.

교회에 멀리 떨어져 교회와 목사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황집사님께 이 날 심방은 너무나 귀한 평생에 가장 큰 신년 선물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함께 한 8교구 모든 식구들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입은 귀한 날이 되었다. 유테서(편집부)

나의하나님

화폭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

전광영 집사(13교구)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술 대학을 진학한 후 뼈를 깎는 유학 생활을 하며 좌절과 고난의 시기를 지난 후 지금이 있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대머리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이고 저들과 실력을 겨룰터인데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부드럽게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안위하십니다.

지난 해 안수 집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잦은 해외 전사로 교회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큰 걸림들이 됩니다. 그러나 안수를 받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음을 나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과 많이 달라졌고, 스스로 봉사의 기회를 찾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가 되면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려니와 아직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은 지금은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화선교사로서 세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일본 유명화랑의 전속 작가 계약을 시작으로 멕시코, 스위스의 바젤 등 해외 전시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해외에 갈 때면 나와 꼭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없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고 나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는 그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유수의 작가들이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앞세울 때 나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그들과 어깨를 겨루곤 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새벽에 눈을 뜨면 나는 습관처럼

따끈따끈한 사랑방으로 오세요



지난 수요일 1부 예배 후 지하1층 교육관(사랑방)이 개관되었다. 이종운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오색 태포를 커팅하며 요한복음15장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로 사랑방 문을 열었다.

대치동 교회당으로 입당한지 4년만에 배가되는 기적의 부흥을 주시고 교육관이 부족하던 중 성도님들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눈물과 수고의 헌신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현당도 하기 전 사랑방을 개관하였다.

교회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시던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특히 하루 종일을 교회에 계시도 마땅히 설만한 쉼터가 없어 어르신들이 힘드셨지만 이제 노년에 성숙한 믿음으로 한 템포 늦추어 가라는 여유와 공간을 주신 것 같아 감사할 뿐이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 드린다.

사랑방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큰 뜻이 담겨 있다. 개관식이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준비하신 뜨끈뜨끈한 팔 시루떡과 생강차가 영하의 추운 겨울날 사랑방의 온기를 느끼게 하였다.

사랑의 향기가 온 교회를 적시며 서울 교회의 거룩한 역사의 증인들이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방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동기(편집부)

등정

- 이종운 목사는 24일(월)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석하고 25일(화) 총회 주재위원회와 비전2020 운동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 독남: 여재홍 성도, 우영선 성도(3-17) 1월6일
 - 이사: 김세제 장로, 이운진 권사(3-19) 도곡2동 타워팰리스 F/3506 (전화) 572-0263
 - 주간식당봉사: 뽕뽕여전도회(1월23일) 마리아여전도회(1월30일)
 - 금주의 식사: 여유현 집사 양미숙 집사 가정.
- 이종형 집사 김남욱 집사 가정 -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천국시민양성- 2005년을 이길 일꾼들에게 듣는다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여전도회가 되길...



김희정 집사(도르가여전도회 회장)

이종운 목사님 주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기어 다닐 무렵 처음 전도회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참석하였는데 막내라며 예뻐해 주셨고 저 또한 여전도회의 여러분들을 의지하며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기어 다니던 그 아이가 어느덧 중1 의젓한 소년이 되어 엄마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었고 저 또한 여전도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보듬어 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론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회장이라는 직분이 저를 더욱 경건 하게 하고 많은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를 보여 점점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참석 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던 집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봉사, 식당봉사, 경로 대학봉사를 형편 닿는 데로 열심히 도와주겠다 약속하는 집사님들, 직장으로 참석 못해도 물질로 봉사해 주시겠다는 집사님들... 모두 도르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 되어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올해는 여전도회에서 많은 집사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 서로 교제하고 세상 친구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위안과 평안과 기도의 힘을 여전도회에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또 먼 훗날 사라 전도회가 되어 도르가 때의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직 도르가가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작은 모퉁이를 지키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도르가를 어어쁘게 보아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교회, 세상의 소망 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북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